커지는 '개방'의 북소리

농업정책연구소장
이 헌 목

"한국 일본 중국 3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은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의 이사장 와타나베 오사무씨가 최근 주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러면서 "한국기업들도 한중일FTA 출현을 상정, 사업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중국의 무리한 요구에 밀려 "쌀 협상에서 관세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한중일 3국이 ASEAN과의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높은 관세를 많이 깎고, 출범 초년에 관세를 20%씩 일률적으로 깎자는 DDA협상의 기본골격에 전 회원국이 동의를 하고, 관세상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9월8일 뉴욕에서 증권거래소 주최로 열린 민·관합동 투자설명회에서 조윤제(趙潤濟)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FTA추진방향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국, 아세안(ASEAN), 남미 등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멀리서 가까이서 들려오는 '개방'의 북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우리 국내농산물시장을 쟁탈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외국농산물이 진군해 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북소리는 깊고도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쉼 없이 몰려올 저 "막강한" 외국농산물 군대를 누가 나서 막을 것인가? 정부가 나서서 막아 줄 것인가? 농민들이 나서서 데모로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외국농산물의 진군을 최대한 늦추고, 병력도 줄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다지만 협상을 하고 있는 상대국들은 정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가 않다. 다른 한편, 우리의 최고위 정책결정자는 뉴욕에서 "자유무역"을 역설하고 있다. 아마도 수년 내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농업선진국인 미국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싼값(?)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국과 아무 제한 없는 경쟁을 해야 할지 모른다.

JETRO이사장은 "유럽연합(EU)처럼 아시아경제공동체의 창설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했다. 개방이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항이다. 문제는 개방의 속도이고, 얼마나 대비를 잘하느냐 이다. 정부는 119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융자예산을 확보했으므로 전문가들이 엄정하게 심사·평가하여 정책을 선택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충분히 맞서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직접지불제와 농촌복지와 재해보험 등을 확대해 나갈 경우, 농업인의 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못지않고, 농촌도 농촌다움을 유지하여 도농공존의 삶의 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아무도 우리 농업 · 농촌이 정부의 주장과 전망대로 잘 되어 가리라 믿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노력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월드컵 4강을 이룬 것도 훌륭한 감독과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국민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30여 년 만에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최고CEO의 올바른 판단과 리더십, 그리고 수만 명 임직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 · 농촌의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의욕과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몰려오는 '막강한' 외국농산물의 공세를 우리 농업이 견딜 수 있을까? 농업계의 모든 종사자와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농민과 한마음으로 대응해도 버텨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는 모두 각자 따로 '놀고 있다.' 7만에 가까운 농협임직원은 자기들 먹고사는 것 때문에 농산물판매사업은 제쳐두고 돈 장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론에만 매달릴 뿐 우리 농업의 현장문제에 달려들고 있지 않다. 그 많은 농업관련 기관, 단체, 연구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농업 · 농촌의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 자율농정, 지역농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뿐이다. 많은 농민들은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하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누가 우리 농업계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농민들의 의욕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누가 우울하고 기분 나쁜 이 분위기를 타파하고, 너도나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팔을 걷어 부치며 나서게 할 것인가? 개방의 북소리가 저렇게 커지고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은가. 지난 세월동안에 보았지만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은 뻔하다. 많은 농민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직접지불금도 2013년 농가소득의 9.8%밖에 잡혀있지 않다. 농업 · 농촌이 붕괴되면 가장 답답한 사람은 농민이다. 대한민국 농업 · 농촌의 주역인 한농연 회원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업 · 농촌문제에 한농연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주인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사람을 잘못 쓴 것도 주인의 탓이요, 미리 예방을 못한 것도 주인의 탓이기 때문이다. '10만 농림공직자'가 진짜 농업 · 농촌문제에 매달리게 해야 한다. 119조원의 돈이 진짜 농업 · 농촌을 살리는데 쓰이게 해야 한다. 우리는 최고의 농민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농민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 한농연회원이 나설 수밖에 없다.

〈징기스칸〉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백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